

필리핀 전통가치 Pakikisama

김 성 철*

목 차	
I. 머리글	III. Pakikisama
II. 필리핀의 전통적 가치관 체계	IV. 결 론

I. 머리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작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다. 더구나 다분히 단문화적 시각에서 타문화와 그 문화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생길 수 있는 편차와 왜곡은, 문화의 주체 내부에 있기보다는 객체들의 사고 가운데서 오히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종래 별다른 관심과 주의를 끌지 못하던 지역의 사회구조나 인간행태, 그들의 생활 방식, 사고방식, 표현방법 등 인간생활의 여러 면들을 살펴보고 연구하려고 할 때, 그와 같은 왜곡현상은 자칫 남의 문화를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나의 주관적 판단 기준에 맞추어 인식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방법상의 함정을 가능한 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겸허한 자세가 시급한 시점이다. 본고는 필리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 중, 특별히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와 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Pakikisama의 기능에 관하여 살펴봄으로 필리핀 문화 이해에 대한 소박한 기여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되었다.

무릇 사람이 사는 땅덩어리에는 그 지역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다. 가치관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생활의 여러면에서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적합한가 그렇지 못한가 등등 여러가지 판단을 위해 쓰여지는 기준 혹은 표준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치관이란 특정한 사

* 전주대학교 지역계획학과 교수

회환경 가운데서 개인이 행동의 법칙으로 삼고 있는 규범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여지나, 종래 많은 경우에 이 두가지가 별다른 저항을 유발치 않으면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였다. 한편 가치관이란 문화의 산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이 두가지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문화를 특정한 방향과 양식으로 성장시키며 전개시켜 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문화는 특정한 환경 내에서 생존해 나가는데 필요한 생활방식으로서 인간행태의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정 생활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때에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 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어지는 가운데 습관이나 도덕률, 민속, 관행 등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회화 과정의 주요 이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전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은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형성, 지속되어 온다고 할 수 있다.

II. 필리핀의 전통적 가치관 체계

필리핀의 전통적 가치관 체계는 대략 일곱개 부문에 걸쳐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필리핀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적 행태와 관행, 관습 등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일곱가지는 다음과 같다. 1) Pakikipagkapwa(인간관계 가치), 2) Karangalan(도덕적 가치), 3) Karapatan(권위 가치), 4) Pagsapalaran(모험심 가치), 5) Mapagkawangawa(인간에 가치), 6) Kaunlaran(진보 가치), 7) Kinabukasan(미래지향 가치) 들이다.

위의 일곱부류 가치관 체계들은 다음에 나타나는 규범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사회현상 가운데서 들어내게 된다. 이들 규범들은 필리핀 사회의 일상생활 중에서 각종 행태와 의사결정의 배후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필리핀 문화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기능해 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래에 열거할 규범들을 가치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엄격한 의미에서 규범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치관으로 보는 경향이다.

첫째로, 인간관계에 관한 가치관들을 들 수 있다. Pakiramay(동정심), Galang(존경심), Pakikisama(원만한 관계), Pakikipagkapwa(사인주의), Bayan-

ihan(상호협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로, 인간 감정에 관한 가치관으로써는 Hiya(수치심, 또는 수줍음), Bahalana(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임), Awa(불쌍히 여김) 등이 있다.

셋째로, 도덕적 가치들으로써는 Utang-na-Loob(감사의 빛), Dangal(자존심), Puri(명예), Pagkalalaki(남성우위), Pagsasamantala(기회포착), Katapatan(충성심) 등등이 있다. 다만, 이상의 가치관들 가운데서 필리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관한 가치관들 보다는 도덕적 가치관에 보다 더 무거운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면 이들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문화 전반에 걸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력을 발휘 하면서 기능하게 된 힘은 무엇인가?

필리핀의 문화는 근본적으로는 말레이 문화이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들의 바탕문화는 아라비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스페인, 미국 등의 문화들과 교섭을 갖는 동안 엄청난 문화변동을 경험하면서 오늘의 필리핀 전통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교섭과 변동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관의 형성요인으로는 대략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바탕문화의 특성 외에 동양문화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인들의 가치관의 핵심부분과 자신의 문화적 정체는 결혼관계, 혈맹, 의식적 가족관계, 동일가족 내의 공동거주, 지역공동체의식,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한 역사적 경험 등등, 인간관계 또는 사회관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같은 성향은 필리핀의 바탕문화가 되는 Aeta문화의 유랑성, 원시적 주거형태, 극히 단순한 복장형태, 석기사용, 익히지 않은 음식 습관 등과 아울러 인도네시아, 말레이, 힌두문화 등에 유래를 두고 있는 해상생활 습관, 극히 원시적 형태의 돛단배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육지 거주인의 경우 땅위에 띄어 지은 가옥형태, 화식습관, 발벼재배 풍습, 부족간의 목베기 풍습, 계단식 수도작 기술, 각종 향아리 빚는 기술, 관개수로를 이용한 농업 기술, 정령숭배사상, 코로 부는 피리, 잔스크리트 언어에 기초한 어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아라비아로부터의 영향으로는 이슬람 종교, 신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으로는 무역과 각종 상거래 방법 등이 이미 12세기 이후의 문화적 교섭을 통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방적 영향에 필적하는 커다란 영향은 역시 스페인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아는 대로 1521년 마젤란이 세부섬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 서방문화와의 교섭은 이후 350여 년을 두고 필리핀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들 서방 식민세력들의 영향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경제, 교육, 언어습관, 관료체제, 복장, 음식, 농장제도, 미대륙과의 무역, 마을의 축제, 건축양식, 콤팩트레 씨스템 등의 제도와 사상, 문물, 도박성, 생활습관 등등 구석구석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영향은 지방의 가장 적은 행정 단위인 바랑가이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구조 내부에 Patron-Client system을 구축하고 통치력을 행사해 왔다.¹⁾ 이같은 사회구조는 필리핀 사회 자신의 것을 경시하고 지배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풍조, 스페인 통치계급, 원주민 지도세력, 그리고 원주민 하층계급 등으로 사회를 계층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같은 과정과 경험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정부를 압제와 착취자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세력으로만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을 위해 가지는 기대는 정부로부터가 아니라 가족이나 기타 자의에 따라 만나게 되는 연고집단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²⁾

마지막으로 필리핀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1898년 이후부터 계속되는 미국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억압과 종교적 영향력의 극대화로 표현되던 스페인 세력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선 미국은, 개인생활의 세속화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필리핀의 미국화를 이루었다. 우선 미국은 투손과 비사야스와 민다나오를 정치적으로 통합하면서 민주정부의 제도와 아울러 각종 미국식 법정신을 도입하였다. 삼권분립, 문민통치의 원칙, 법치주의, 대외정부, 선거제도, 공립학교제도, 의무교육, 교과과정의 미국화, 영어사용, 종교의 자유, 미국식 관습과 사고의 도입 등이 그것들이다. 한편 기존의 의식주의, 가족중심주의 등이 한층 더 강화되어 가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고, 교육 기회의 보편화를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이동성이 보장되는 면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 모든 내·외적 요인들은 결국 필리핀 문화전통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데에도 커다란 흔적을 남겼지만 그것은 다분히 필리핀화 되어가면서 필리핀 문화의 독특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생활의 방편으로서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동양적인 요인이나 서양적인 요소 모두가 본래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토착화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필리핀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극히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양식과 사고유형을 가지고 자기

1) O. D. Corpuz, *The Philippines* (Manila: National Book Store, 1976)

2) *ibid.*

식으로 변형된 제도를 운용하면서 사는 필리핀 사회를 만들어 낸 요인들이다.

III. Pakikisama

일반적으로 Pakikisama는 가족이나 또래집단 혹은 그밖의 준거집단의 성원들과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개인이 갖게 되는 기대감, 혹은 의존심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지칭한다. 그러나 Pakikisama는 매우 복잡한 모습으로 사회관계 가운데에 나타난다. 어떤 때에는 기대심리로, 어떤 때에는 양보 혹은 종속성으로, 그리고 어떤 때에는 강도 높은 패거리 의식으로, 또 다른 때에는 무관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Pakikisama가 기대심리로 나타나는 경우 우선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감정표출을 억제하든지 아니면 은폐하거나 또는 비록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나 상대방에게 순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원만치 못함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을 최소화 시키려는 기대감이 내재하는 것이다. 한편, 보다 능동적인 면으로 Pakikisama가 작용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좋은 행동을 기대하는 심리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때에 Pakikisama는 다분히 쌍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성이 깨어지는 경우 양자간의 Pakikisama를 다시 회복 시키기란 무척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문화에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에서의 공손한 태도는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덕목이 되며, 궁지에 몰려 더이상 어쩔 수 없게 되기까지는 공중 앞에서나 혹은 자기의 준거집단 앞에서 직접적인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도록 요구되는 것이다.³⁾ 그리고 이와 같은 가치가 사람들의 행태를 지배하게 되어온 배후에는 “인간의 몸은 각종 덕목이 내주하는 곳으로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속을 내보일 까닭이 없다”는 경구나 혹은 “부도덕한 자만이 자기 속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속담 등에서도 Pakikisama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겠다.

Pakikisama가 협조심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직계가족이나 혈연집단에 대하여는 거의 무제한적이며 절대적이라 할만큼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고 뻗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난

3) F. L. Jocano, *Philippine Tradition and Acculturation* (Tokyo : Waseda Univ. Press, 1979.)

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장성한 자녀가 부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며, 또 장자나 장녀는 거의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동기간들에게 군림하면서 자녀간의 화목을 도모해 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더구나 자녀들 사이의 화목은 부모들에 의한 가정교육의 성공을 가늠해 주는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직계가족이 아닌 혈족집단에 대한 협조는 그것이 모계이든 부계이든 양쪽 모두에 차별을 두지 않고 같은 정도로 나타난다. 이같은 사고는 필리핀 사회가 친가와 외가 모두를 중하게 여기는 양계사회구조(Bilineal)이기 때문에 생겨지는 당연한 귀결이라 여겨진다. 고도로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이 지배해 오고 있는 필리핀에서의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관계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혈족에 대한 도움이나 지원의 거부는 거의 치명상을 입게 되는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Pakikisama는 필리핀 사회에서 가족적 연대의식이나 개인의 사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

Pakikisama는 혈연집단 이외의 대상에게는 친절과 호의로 나타난다(Pagdadamayan). 이와 같은 친절과 호의는 현세적으로는 혹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세적으로(Sa kabilang buhay)라도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믿는 신념이 강할수록 Pakikisama의 영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화적 지향은 또한 현세적으로도 적절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타나 필리핀 사람들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상호성(Utang na Loob)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앗이(Bolhon)와 같이 무언의 계약관계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큰 일을 치를 때 서로 주고 받는 부조금(Abuloy)처럼 준계약적 관계로 나타나든지간에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한번 입은 은혜와 호의, 친절은 거의 평생을 두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상대방에서도 기대하는 것이다.

Utang na Loob은 사회적 계층이 비슷한 사람들 간에서 혹은 전혀 다른 계층간에서도 생긴다. 다만 같은 계층간에 발생할 때는 Ganti라는 말로 되갚음을 표현하나 이것은 노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듣기 좋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Padulas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심정적으로는 Padulas를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급부만큼의 반대급부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성은 사

람과 사람사이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⁴⁾

Pakikisama는 전혀 모르는 외부자나 혹은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Dehado)들에게도 나타난다. 이 경우 전혀 모르는 외부자에게는 언제라도 도와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무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곤 한다. 오히려 아는척 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욱 곤혹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그로부터 도움을 요구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태도이다. 상대방의 Amor propio(자존심)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만일 불필요한 긴장을 주게 되는 것은 상대방의 수치심(Hiya)을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에서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Awa)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강한자(Ilamado)에게는 칭찬과 경의를 보내지만, 약자에 대한 동정은 오히려 강자에 대한 지지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Awa sa dehado).

Pakikisama는 양보나 종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나 입장을 집단의 기대나 규범에 양보하거나 혹은 종속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특히 어떤 개인이 특정집단의 일원이 되어 그 집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할 때 그 집단을 Barkada라고 하며, 그 개인은 Barkada의 구성원으로 행세할 수 있음에서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Barkada를 위하여는 자신의 의지를 Barkada의 의지에 종속시켜 버리게 된다. 이를테면 개인을 집체 속에서 분해시켜 버림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Walang Pakikisama로 불리워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사회적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만큼 Barkada의 중요성과 영향이 개인의 그것들보다 우선되는 것이 필리핀 전통가치관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필리핀 사회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대부제도(Compadre System)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즉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의 Compadre가 된 경우, 이제부터는 두사람 사이의 Pakikisama때문에 자기의 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구와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업조직의 경우에도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아무리 게으른 친척일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기 전에는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이 역시 Walang

4) J. J. Carroll, et al, *Philippine Institutions* (Manila : Solididad, 1970).

Pakikisama가 두렵기 때문이다. 양자 사이에 혐의나 대화 혹은 설득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Pakiusap을 들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간청, 구걸 등의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자립의 자세보다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시켜 문제의 난국을 피하려는 것이 바로 Pakiusap이다. “당신이 만일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하는 것이다. 장기적 해결책보다 순간적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이를테면 Pagta Takip이 그것으로, 이는 문제의 내용을 덮어버림으로써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심리적 방어책이다. 이같은 방법을 사회적 격리로부터 수용에로의 자툼길로 뻗히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그리고 이같은 방법 자체를 크게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는 Pakikisama가 심리적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이미 Pakikisama가 양보, 종속 등으로 나타나 집단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의 의사에 자신을 종속시킴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성향이 집단 내부에 팽만하여 성원의 의사뿐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하여도 심한 방어성을 보이면서 패거리의식(Pagbabarkada)이 되어 집단 응집력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같은 현상은 분파주의 또는 지역주의 등으로 확대·변이되어 지역감정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더구나 이런 과정에서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은 필리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친구, 상사, 스승, 지역공동체 구성원 등에 대한 강한 의리, 충성심, 약속의 중요성 등의 가치관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그 강도를 높여 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은 사회구조상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지역공동체 단위로 점점 확대, 확산되어온 것이다. 흔히 말하는 Tayo Tayo나 Kanya Kanya 등은 바로 이와같은 내집단 의식을 한마디로 응축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기것에 대하여는 강한 결속력, 구심력을 보이면서도 외부집단, 타인등에 대하여는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Pakikisama는 필리핀 문화 가치의 가장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오늘의 필리핀 사회가 유지되어 올 수 있게 만든 주요 요인변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관계에서 적지 않은 역기능을 함께 초래해 온 엄청난 힘으

로 작용해 왔다. 이같은 문화전통은 필리핀 사람들이 겪어 온 역사적 경험의 양과 질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한 바이다. 이런 면에서 Pakikisama를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Pakikisama는 하나의 가치관으로써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Utang Na Loob, Hiya, Barkada 등의 가치체계 내부의 다른 가치들과 밀접한 관계 혹은 네트워크 가운데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가족, 집단 등 어디에서든지 심리적 안정감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정감은 집단의 사회적 존재 이유를 높여 주며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시켜 준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화 과정과 비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자조적이기 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며 사인적, 은정적이고, 내집단 지향적이며 상호의존적인 퍼스넬리티를 형성케 하고 있다. 결국 Pakikisama는 내집단에 대하여는 통합적 기능으로, 그리고 외부집단에 대하여는 무관심 또는 분열적 기능을 가지면서 오늘의 필리핀 사회를 필리핀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Carroll, J. J., et al. *Philippine Institutions*. Manila: Solidridad, 1970.
- Corpuz, O. D. *The Philippines*. Manila: National Book Store, 1976.
- Guthrie, G. ed. *Six Perspectives on the Philippines*. Makati: MDB Printing, 1989.
- Hollensteiner, M. R. ed. *Society, Culture, and the Filipina*.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75.
- Jocano, F. L. *Philippine Mythology*. Quezon City: Capitol Publishing House, 1969.
- _____. *Philippine Tradition and Acculturation*. Tokyo: Waseda University Press, 1979.
- Lynch, F. and A. de Guzman, eds. *Four Readings on Philippine Values*. Manila: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70.